



### 남원소방서, 불조심 강조의 달 캠페인 진행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유엔미어린이집 119청소년단과 함께 부영아파트 1차 일대에서 유엔미어린이집 119청소년단원 15명과 지도교사 2명, 남원소방서 교육담당자 등과 화재예방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일상 속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지역사회에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를 위해 마련되었다. 캠페인에서는 △불조심 홍보 피켓을 활용한 거리 캠페인 △생활 속 화재위험요소 알아보기 △주변 환경 정화 활동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청소년단원들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화재예방 메시지를 전달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운봉 라이온스클럽서 철쭉 심기 나서

남원시 운봉읍 관계지는 운봉라이온스클럽(회장 최정섭)에서 최근, 지역 경관 개선을 위해 철쭉 식재 비용 200만 원을 기탁해 회원들과 운봉읍 직원,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철쭉을 식재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의 대표적 상징인 철쭉을 활용해 운봉읍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한층 더 아름다운 첫인상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오전에는 회원 20여 명과 읍 직원, 단체장들이 운봉 진입로터미 일대에서 토양 정비와 철쭉 식재, 주변 환경정비를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신풍동, 노인 일자리사업 어르신들과 소통 간담회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1일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사업 참여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참여자 격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관내 도로변 잡초 제거,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활동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성실히 참여한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참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향후 더 나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건의사항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 소설 아리랑의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거닐다

김제시립도서관 아리랑 독서단 김제·군산 일대 문학기행 성료

김제시립도서관은 지난달 29일 '아리랑 12권 함께 읽기'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자 25명과 함께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의 핵심 배경지인 김제·군산 일대 문학기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행은 특히 소설의 중심 무대이자 일제강점기 호남평야 수탈의 출발점이었던 김제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심도 있게 조명하며 진행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

김제는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지역으로, 예로부터 국가 곽창지대 역할을 해온 국내 최대 평야지다. 1903년부터 시작된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으로 김제 농민들은 대규모로 농토를 상실했고, 조정래 작가는 이 지역에서 벌어진 토지 강탈·소작료 착취·농민 유랑의 현실을 소설 아리랑의 주요 줄기로 삼았다.

김제에서 시작해 호남평야의 수탈 경로를 따라 군산 옥구저수지(옥구농장), 수덕공원, 새창이 다리, 심포항, 군산항·광활 간척지, 김제향교 등 소설 아리랑 속 민중의 고난과 저항 서사의 배경을 이루는 중요한 공간을 따라 탐방했다.

아리랑문학마을에 재현된 수탈 장면과 박물관형 전시를 통해 김제 농민들이 겪어야 했던 시대적 아픔을 생생히 체험하며 소설의 메시지를 다시금 되새겼다.

이번 탐방에는 북원대학 대표이자 인문·지리·역사 기행 전문가인 장현근작가 동행해 김제·군산의 지리적 특성과 소설의 역사적 배경을 연결하는 해설을 제공했다.



장현근 선생님은 「소설 『아리랑』 따라가는 인문학 기행」 기획자이자 『동진강에 흐르는 아리랑』 등의 저자로, 현장을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설명을 더해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크게 높였다.

이번 탐방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김제 지평선과 군산항을 함께 돌아보니 소설의 서사가 현실로 이어짐을 느꼈다"며 "아리랑문학마을의 전시물, 군산 수탈 현장의 흔적들을 직접 보며 작품의 의미가 더 깊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저항의 역사가 서린 곳이며, 그 정신이 소설 '아리랑'에 깊이 담겨 있다. 이번 문학기행이 김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이 문학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김제시립도서관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인문도시 김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장수경찰서, 감사-한마음 Poli 팝콘나누기 행사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1일 한 해 동안의 직원들의 노고를 달래고 직원화합을 통해 공직기강을 높이기 위한 팝콘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감사-한마음 Poli-팝콘 Day'를 주제로 경찰서 3층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팝콘을 튀기고 나누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직장 내 갑질, 성희롱·성폭력·음주운전 등 의무 위반행위 근절을 다짐하고, 술 안 권하기, 동료 챙기기 등 직원화합을 통해 내부민족을 외부민족으로 확대하여 주민안전과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다짐 캠페인을 하였다.

이날 황재현 서장은 "오늘같은 화합의 날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지역치안과 주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 당부를 더 하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 부안소방서, 콘서트형 소화패치 보급행사 실시

부안소방서(서장 최길웅)는 부안을 학동길 소재 봉덕주공1차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거주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콘서트형 소화패치 보급행사'를 실시했다.

겨울철 전기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부안소방서 직원과 의용소방대원, 부안군청 관계자 등 총 42명이 참여해 주민을 대상으로 △소화기 및 콘서트형 소화패치 사용법 △전기화재 예방교육 △세대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부안=김진석 기자

## 임실군소상공인연합회, 덕치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

임실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홍대환)가 지난달 30일 덕치면 소재 마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는 연합회 회원들을 비롯해 덕치면 하현 부면장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목거노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 등 총 두 곳을 대상으로 도배와 장판 교체 작업이 이뤄졌다.

참여자들은 오래된 벽지와 장판을 새것으로 바꾸며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탰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주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작업을 진행했다.

하현 덕치면 부면장은 "자발적인 참여와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신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행정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했다.

홍대환 회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전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8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845-93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진봉면 심포마을, 어르신 심검 으뜸마을 행사성료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8일, 2025년 어르신 심검 으뜸마을로 선정된 심포마을에서 맨드라미의 소담한 기억 행사를 열어 마을 주민과 새만금 바람길 걷기 참여자 등 100여 명이 어린 시절 추억을 되살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심포리 커뮤니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사물놀이, 재즈, 기타 등 공연이 펼쳐졌으며, 어르신들이 만든 나전칠기 소품, 정크아트 작품, 마을의 옛 사진 등을 전시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연탄불에 옛날 과자를 직접 구워 먹으며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도 되새겼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